

百濟 武寧王代의 自尊的 天下觀*

양 기 석**

-
- I. 머리말
 - II. 大王號 사용과 神聖族 觀念의 대두
 - III.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 IV. 맺음말
-

I. 머리말

백제 武寧王代(501~523)는 웅진시대(475~538)에서 사비시대(538~660)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하며 백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무령왕이 추진한 왕권강화책의 해명은 뒤이어 전개되는 사비시대 초기 성왕대 정치개혁의 성격을 밝혀주는 고리가 될 뿐 아니라 백제의 고대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한 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주목을 끌게 해주고 있다.

무령왕은 東城王(479~501)대 일련의 실정을 틈타 동성왕을 시해하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2010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0)”

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던 □加 일파의 반란을 평정하고 40세라는 연만한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이제까지 웅진천도와 이에 따른 정국의 혼란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당시 백제가 당면한 큰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무령왕은 정치·사회·경제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또한 종래 수세적이었던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그 전장을 한강유역에까지 확대시켰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삼진강유역의 대가야 세력권까지 백제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국력의 안정을 바탕으로 무령왕대에 백제는 크게 대왕의식, 신성관념,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 자존적인 천하관을 표출하였다. 백제 무령왕대 천하관의 단편적인 면모를 알려주는 사료가 무령왕릉 묘지 및 매지권에 표기되어 있는 자존적인 표현들, 『梁職貢圖』에 열거되어 있는 ‘旁小國’의 존재, 그리고 『梁書』 백제전에 나오는 ‘更爲疆國’ 등의 표현 등이다. 특히 『양서』 백제전에 나오는 ‘旁小國’은 백제가 이들 소국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는 실제 상황과는 다른 당대 백제의 일정한 대외관계상의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무령왕대의 대외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백제가 중국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는 백제 중심의 자존적 천하관¹⁾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1) 천하관은 자기 나라의 위치가 어떠한가, 나아가 인접집단과 비교해 자기 나라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현실정치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천하관은 왕권이 신장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국 중심의 정치질서의식이며, 국가관 입장에서 나름의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천하관은 원래 중국의 중화사상이나 화이사상에서 비롯된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에 사상적인 연원을 가진 것이지만, 주변 제국의 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된 자존적 천하질서인식 면에서 볼 때 중국 중심의 화이관과 주변 제국의 천하관은 구별되어야 한다(시노하라 히로카타, 「고구려적 국제질서인식의 성립과 전개 -4~5세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5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제 나름의 자존적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천하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백제 무령왕대에 이르러 실제 상황과 다른 신성족 관념이나 주변 세계에 대한 일방적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무령왕릉 출토 묘지 및 매지권에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崩’자를 표현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도 왜 무령왕릉 묘지 및 매지권에는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수여한 ‘寧東大將軍’이란 관작을 굳이 명기하게 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양서』 백제전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누차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更爲疆國]’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일련의 의문은 무령왕 당시 표출되었던 자존적 천하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령왕릉은 1971년 발굴 조사된 이래 많은 유물들과 묘지 및 매지권이 출토됨으로써 6세기 전반 백제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큰 주목을 받아왔던 중요한 유적이다. 이를 계기로 무령왕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측면에서의 개별 연구와 종합적인 연구가 행해지게 되었고, 아울러 백제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많은 연구 성과를 낳게 되었다.²⁾ 무령왕대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무령왕의 출자 및 즉위 과정, 좌평제 개편, 지방통치조직인 담로제 실시 등 주로 정치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무령

2) 무령왕에 대한 주요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이홍직, 「양 직공도 논고」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 이진희, 「고대 조일관계사 연구와 무령왕릉」 『백제연구』 특집호, 1982.
-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동화출판사, 1983.
- 충청남도·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편,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및 『백제무령왕릉』, 1991.
- 노중국, 「백제 무령왕대의 집권력 강화와 경제기반의 확대」 『백제문화』 21, 1991.
-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진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 권오영, 『무령왕릉』, 돌베개, 2005.
-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학술대회』, 2006.
- 정재윤, 「무령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국력회복」 『웅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공주대학교 외, 『백제의 국제성과 무령왕』,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2011.

왕대의 천하관에 대해서는 『양직공도』에 나오는 ‘방소국’의 존재에 주목하여 무령왕대 당시 백제 중심의 천하관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밝혀졌고, 그 역사적 의미도 함께 검토되어 이 방면 연구에 지표가 된 것은 이용현의 연구³⁾가 있다. 그러나 『양직공도』 백제조의 분석만으로 무령왕대 당시의 천하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무령왕대에 실시한 대내외적 시책들을 이러한 천하관과 관련시켜 파악할 때 무령왕대의 왕권강화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령왕대 자존적 천하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이외에 대내적으로 왕권의 신성족 관념, ‘쟁위강국’의 선언에서 나타난 고구려와의 대등한 인식,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지역 여러 세력을 복속 개념인 ‘旁小國’의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무령왕대에 추진된 여러 대내외적 시책들은 당시에 표출된 천하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방면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당시 무령왕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자존적인 세계를 그려낼 것이다. 다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논지 전개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은 후일에 보정할 예정이다.

3) 李鎔賢, 「『梁職貢圖』百濟國使條の『旁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37, 綠蔭書房, 1999, 171~195쪽.

II. 大王號 사용과 神聖族 觀念의 대두

1. 大王號와 자존적 용어의 사용

백제 무령왕대에 천하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절대 부족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무령왕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령왕대 왕권의 위상 변화로서 주목되는 것이 대왕호의 사용과 왕권의 신성성 문제일 것이다.

먼저 백제에서 왕호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한 정치체에서의 왕호 사용은 정치발전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의 군주호로 ‘百濟王’이라는 왕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마한의 전통에 따라 臣智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가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점차 중국식으로 왕호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왕호 이외에 다른 호칭이 있었음이 『周書』 백제전에 나타나 있다. 즉 백제 지배층에서는 왕을 부여계의 칭호인 ‘於羅瑕’라 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靺吉支’라 하여 신분별로 다른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왕호 이외에 최고 군주호인 대왕호를 사용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왕호가 腆支王(405~420)의 즉위과정에서 ‘대왕께서 돌아가시지[大王棄世]’라는 기록에 처음 나오고 있다. 전지왕의 아버지인 阿莘王(392~405)을 대왕으로 호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聖王(523~554)도 가야제국에서 대왕으로 불리워졌음이 확인된다.⁴⁾ 금석문의 경우 부여 구아리에서 출토된 ‘一斤銘’ 거푸집 뒷면에 새겨진 ‘大王天’이라는 명문⁵⁾과 최근 익산 미륵사지서탑에서 출토된 「사리봉 안기」의 ‘大王陛下’ 등의 명문 기록에서 대왕호가 보이고 있다. 그밖에 『송서』 백제전이나 『남제서』 백제전에 나오는 左賢王·右賢王과 侯

4)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

5)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문자』, 2002, 22쪽.

號 및 太守號의 존재를 통해 5세기 백제에서는 대왕호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⁶⁾ 또한 백제 말기 의자왕대에 ‘小王 孝’의 기사⁷⁾에서도 소왕 위에 군림하는 대왕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백제에서는 최고 군주호인 대왕호가 언제부터 호칭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백제 말기까지 대왕호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묘지 및 매지권에는 ‘斯麻王’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왕호는 대왕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묘지 및 매지권에는 유교적 예법에 따라 황제의 죽음에만 사용하는 ‘崩’자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중국 양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단지 癸卯年, 乙巳年 등과 같은 간지만을 사용한 점에서 자존적인 주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령왕은 실질적으로 대왕의 위상을 가졌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무령왕릉 묘지 및 매지권에는 ‘寧東大將軍’이라는 장군호가 함께 ‘百濟斯麻王’이라는 왕호도 기재되어 있어 대왕의 위상과는 차이가 난다. ‘寧東大將軍’은 무령왕이 508년 梁 武帝로부터 새로 외국용으로 정해진 장군호를 수여받은 관작이었다. 이는 백제왕이 중국 왕조로부터 수여받은 2품관 鎮東大將軍과 같은 반열에 속하는 것이었다. 백제 무령왕은 외교전례상으로 볼 때 양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영동대장군으로서 장군부를 개설한 梁의 관료의 위치에 있었음을 뜻한다. 그렇지만 무령왕은 백제 대왕이든 양의 영동대장군이든 간에 중국 왕조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군주호·장군호나 자존적 용어를 대내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⁸⁾ 이러한 대왕호와 자존적인 용어 사용은 대내외적으로 백제국가의 신성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정치적 의도와 깊은

6) 坂元義種,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古代東アジ아의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65~119쪽.

7) 『舊唐書』 권199상 동이 백제국.

8) 이주현, 「위진남조의 장군제와 ‘영동대장군’」 『백제의 국제성과 무령왕』,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2011, 165~167쪽 ; 노중국, 「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앞의 책, 20~23쪽.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백제의 다른 왕의 사례에서도 찾아진다. 성왕은 일반적 인 호칭인 ‘聖王’⁹⁾ 이외에 ‘明王’^{이나}¹⁰⁾ ‘聖明王’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 워졌지만, 대왕으로 호칭된 경우¹¹⁾도 있었다. 익산 미륵사지서탑의 「사 리봉안기」에는 武王을 ‘大王陛下’로 표기하고 있다. 무왕이 술을 마시 고 몹시 즐거워 북을 치고 거문고를 타며 놀았다는 大王浦의 명칭에서 미루어 보면¹²⁾ 무왕은 대왕으로 호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로 보면 백제 왕들은 대왕이라는 호칭을 제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 여하에 따라 왕을 높여서 부르는 미칭이나 존칭으로서 왕호나 대 왕호, 어라하, 건길지 등으로 명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백제에서는 대왕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칭제건원에 해당 하는 연호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翰苑』 백제조와 그에 인용된 『括地志』에 의하면 백제는 송의 元嘉曆과 6갑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백제는 한 해를 표시할 때 60갑자의 줄인 말인 6갑을 간지로 사 용한 것으로 보아 연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소장 되어 있는 「칠지도명문」에 나오는 ‘泰和’를 백제의 逸年號로 보는 견 해가 있지만³⁾ 東晉의 연호로 보는 견해도 많다. 「창왕명석조사리감명 문」이나 「사택지적비」 등 백제의 금석문에는 간지명이 표기되는 경우 가 있지만 연호가 사용된 예는 아직 찾아지지 않는다.

중국 5호16국시대의 왕호는 匈奴·氐·羯·鮮卑·羌 등의 胡族국가 에서 ‘天王’이라는 독자적인 군주호를 사용한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 다.¹⁴⁾ 천왕은 원래 주나라때 사용되었다가 秦代에 황제호의 등장하면

9)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및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6년.

10)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5년.

1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

12)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7년 3월.

13)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523~524쪽.

14) 谷川道雄, 『隋唐帝國形成史論』, 筑摩書房, 1971 ; 宮崎市定, 「天皇なる稱號の由來について」 『思想』 646, 1978 ; 松下洋巳, 「五胡十六國の天王號について」 『調査研究報告』 44, 學習院大, 1999.

서 일단 사라졌다가 4세기초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나라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胡族들이 전통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던 天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고구려의 경우 4~5세기에 만들어진 「광개토왕릉비」 등 여러 금석문과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왕실의 친손족 관념과 함께 대(대)왕호와 ‘永樂’이라는 연호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신라에서도 6세기 중반 진흥왕대에 ‘太王’호가 사용되었으며(「진흥왕순수비」 창령비), 신라 중고기인 법흥왕대부터는 建元, 開國, 大昌 등의 연호가 한때 사용된 일이 있었다. 대가야에서는 6세기 경에 한때 대왕호를 사용한 예가 충남대박물관 소장 ‘大王’명 장경호의 명문에서 찾아진다.

이처럼 중국의 5호16국시대의 호족국가나 백제, 고구려, 신라 및 대가야에서는 각국이 처해진 대내적 조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대왕호를 사용하면서 立國의 정당성과 군주 권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왕호나 자존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2. 神聖族 觀念의 대두

무령왕은 즉위와 관련하여 야기된 일련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독자적인 백제 중심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모색된 것이 무령왕계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신성족 관념을 고양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백제 왕실내 소가계인 무령왕계 중심의 ‘骨族意識’을 고양시키고 또한 왕실의 제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왕권의 이념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이는 무령왕의 변칙적인 왕위 계승에 따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

15) 松下洋巳, 「五胡十六國の天王號について」 『調査研究報告』 44, 學習院大, 1999.

도에서였고, 아울러 무령왕의 혈통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였다.

무령왕의 출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의거해 볼 때 동성왕의 둘째아들설,¹⁶⁾ 곤지의 아들설,¹⁷⁾ 개로왕의 아들설,¹⁸⁾ 그리고 개로왕은 生父이며 곤지는 義父라는 설 등이 있다.¹⁹⁾ 그 중 동성왕 둘째 아들설은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무령왕릉 출토 지식 및 매지권에 보이는 그의 출생 연대와 관련시켜 종합해 보면 무령왕은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를 아버지로 하는 동성왕의 이모형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²⁰⁾ 어쨌든 무령왕의 출자에 대해 이렇게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은 그의 출자가 그만큼 단순치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왜에 체류하고 있었던 동성왕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모형 무령왕보다 먼저 삼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을 보면 무령왕은 일단 적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²¹⁾ 무령왕은 자신을 낳아준 생모에 신분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무령왕이 이처럼 취약한 자신의 혈통을 어떻게 분석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무령왕은 동성왕을 살해한 백가 세력을 제거하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즉위과정에서 야기된 일련의 지배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16)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즉위년.

17)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한국사연구』 45, 1984, 11~18쪽 ; 정재운, 「동성왕 23년 정변과 무령왕의 집권」 『한국사연구』 99·100합집, 1997, 114~115쪽 ; 오계화, 「백제 무령왕의 출자와 왕위계승」 『한국고대사연구』 32, 2004, 251~269쪽.

18) 『일본서기』 권14, 웅락기 5년.

19) 무령왕의 혈통에 대한 여러 학설 정리는 이도학, 앞의 논문(1984), 8~24쪽 ; 양기석, 「백제 웅진시대와 무령왕」 『백제무령왕릉』, 1991,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33~35쪽 ; 정재운, 「웅진시대 백제 정치사의 전개와 그 특성」, 서강대대학원박사논문, 1999, 123~130쪽 등을 참조할 것.

20) 이도학, 앞의 논문, 11~14쪽.

21) 이근우,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삼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박사학위논문, 1994, 132~134쪽.

극복해야 하는 또하나의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는 무령왕이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일에 해당하는 중요 과제인 것이다.

먼저 무령왕의 취약한 혈통을 분석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이끌어내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에 나오는 개로왕 아들설이 주목된다.

A-① 여름 4월에 백제의 加須利君[개로왕이다]은 池津媛을 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適稽女郎이다] 협의하여 “옛적에 여인을 바쳐 采女로 하였다. 그런데 무례하여 우리나라 이름을 떨어뜨렸다. 이에 그의 아우 軍君[昆支이다]에게 “네가 일본에 가서 천황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군군이 “上君의 명은 삼가 어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임금님의 부인을 저에게 주신 다음에 삼가 떠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시집보내주며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해산할 달이 되었다. 만약 길을 가는 도중에 해산을 하게 되면 바라건대 1척의 배에 태워서 다다른 곳이 어디건 속히 나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하직하고 삼가 조종에 파견되었다. 6월 병술 초하루에 임신한 부인이 과연 가수리군의 말처럼 筑紫의 各羅嶋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로 인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嶋君이라 하였다. 이에 군군은 곧 한척의 배로 도군을 나라에 돌려보냈는데, 이가 무령왕이 되었고 백제 사람들은 이 섬을 부르기를 主嶋라 하였다. 가을 7월에 군군이 서울에 들어왔는데 이 때 이미 다섯 자식이 있었다[『百濟新撰』에 이르기를 “辛丑년에 개로왕이 아우 곤지군을 보내어 大倭에 가서 천황을 모시게 함으로써 兄王의 우호를 닦았다”라고 하였다] (『日本書紀』 권14, 雄略紀 5年).

② 이 해 백제 末多王이 無道하여 백성들에게 포박하였으므로 國人이 마침내 제거하여 嶋王을 세우니 이가 바로 무령왕이다[『백제신찬』에 이르기를 末多王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박하였으므로 국인이 함께 제거하여 무령을 세웠다. 무령은 휘가 斯麻王이고 곤지왕자의 아들이니 말다왕의 異母兄이다. 곤지가 왜로 갈 때에 축자도에 이르러 사마왕을 낳아 섬으로부터 되돌려 보냈는데 서울에 이르지 못하고 섬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불렀다. 지금 각라의 바다 가운데 주도(島)가 있는데 왕이 태어난 섬인 까닭에 백제인들이 주도라 부른다. 지금 살펴보건대 도왕은 개로왕의

아들이고 딸다왕은 곧지왕의 아들이라는데 이를 이모형이라고 말한 것은 자세하지 않다.] (『日本書紀』 권16, 武烈紀 4年).

위 기사의 A-①은 무령왕의 출생담과 관련한 설화로서 개로왕을 그의 生父로, 곧지를 義父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형제가 부인을 공유했다는 설화[兄弟共妻說話]는 너무 기괴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무령왕이 어느면에서는 개로왕이나 곧지와는 혈연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설화에서 무령왕을 곧이 개로왕의 직계 혈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보다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거듭된 방계 왕계의 즉위에 따른 왕실 계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성시대 왕통과 직접 연결을 시켜 사비시대 무령왕계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²⁾ 생모의 신분적 한계를 가진 무령왕은 무엇보다도 왕위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합법성을 명분상으로나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무령왕은 생모의 신분을 개로왕의 혈통에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A-①,②와 같은 개로왕 아들설이 생성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무령왕의 실제적인 아버지를 개로왕에 부회하게 되면 그의 생모도 자연히 개로왕의 왕비가 되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령왕은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령왕 소가계 중심의 骨族을 중시하였다. 무령왕은 한성시대의 직계 왕계로 연결시켜 자신의 취약한 가계를 보완한 다음에 자신의 가계를 신성시하려는 시책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무령왕계 중심의 骨族을 중시하는 시책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골족의식의 고양이었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① 백제국이 麻那君을 보내 조공하였다. 천황은 백제가 해가 가도록 조공의

22) 이도학, 앞의 논문, 16쪽.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억류하고 풀어주지 않았다.

(『日本書紀』 권16, 武烈紀 6年 冬10月)

② 백제왕이 斯我君을 보내어 조공을 하였다. 별도로 표를 올려 말하길 “전에 조공을 한 사신 麻那는 백제 임금의 骨族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가 사아를 보내어 조정을 받들어 섬깁니다”라 하였다. 드디어 아들이 있어 法師君이라 하였는데, 이는 倭君의 선조이다.

(『日本書紀』 권16, 武烈紀 7年 夏4月)

위 사료는 무령왕대에 백제가 麻那君과 斯我君을 調를 바치기 위해 왜에 파견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일본서기』의 반국관에 분식된 기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무령왕은 왜와의 우호관계를 위해 마나군을 먼저 파견하였으나, 그가 骨族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아군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나군과 사아군이 君號를 갖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들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²³⁾ 골족은 왕족 중에서 무령왕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가계집단을 말한다. 왜에 파견될 대상 인물을 선정할 때 골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에서 무령왕은 골족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⁴⁾

또한 무령왕대에는 골족이 지방의 거점통치에도 크게 역할을 하였음이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C. (백제는) 도성을 固麻라 하고 읍을 檐魯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말이다. 그 나라에는 22개의 담로가 있는데, 모두 (왕)의 자제와 종족에게 나누어 응거케 하였다. (『양서』 백제전)

23) 백제의 君號는 왕족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貴人에 대한 하나의 존칭으로도 기능하고 있었다(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2003, 36~37쪽). 그런데 백제와 왜 간에 왕족이 주로 파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마나군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나군은 골족이 아닌 이유로 사아군과 교체된 것으로 보아 무령왕계가 아닌 일반 왕족으로 보인다.

24) 노중국, 앞의 논문(1991), 18쪽.

위 기사에서 보듯이 무령왕대에는 각 지방에 담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왕의 자제종족을 파견하여 다스렸다고 한다. 담로제는 중국의 군현과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국식의 군현을 백제 이름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담로제는 일정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는 단계의 앞선 시기에 나타나는 지방통치방식이다. 무령왕대에는 담로제가 전국에 걸쳐 모두 2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서 담로의 통치 역할을 담당했던 ‘子弟宗族’은 골족을 포함한 근친 왕족들이었다. 이처럼 담로주를 왕족 일색으로 임명한 것은 근친왕족을 중용하여 왕권의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무령왕 즉위초에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優永도 골족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왕족으로 보인다.²⁵⁾ 그렇다면 왕족들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무령왕대에는 골족들이 정치·군사·외교·지방행정 등에서 무령왕의 권력기반을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의 무령왕계 소가계집단이 신라의 성골제가 지증왕계에 속한 왕실의 소가계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성골신분이 유지된 것처럼²⁶⁾ 배타적인 골족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왕권의 신성성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골족의 신성성을 나타내려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알 수는 없다. 성왕의 이름에 ‘聖’자를 붙여 불교의 전륜성왕을 상징하였거나, 또는 천축국의 月蓋長子로 환생하여 불국토인 백제를 다스리게 되었다²⁷⁾는 불교식 신성 관념은 부친인 무령왕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優氏를 우태-비류계의 왕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친관우, 「삼한의 국가 형성(하)」 『한국학보』 3, 1976, 137쪽).

26) 이종욱,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영남대출판부, 1980, 254~256쪽.

27) 김영태, 「청관음경신앙과 그 일본전파」 『백제불교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2, 164~173쪽.

또한 무령왕계 골족들이 그들의 祖先에 제례를 올리는 새로운 제의 체계를 모색하여 다른 가계와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무령왕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계집단이 다른 왕족과 구별됨으로써,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왕위 계승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비시대에 백제 왕실에서 거행하던 시조 仇台廟 제사가 주목된다. 『周書』·『隋書』·『翰苑』에는 시조 구태묘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시조 구태묘를 세워 1년에 4번 四仲月에 해당하는 2월·5월·8월·11월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구태묘는 온조계 백제 왕실의 종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성왕대에 講禮博士 陸詡의 건의로 구태묘의 제례에 관한 예법과 격식이 정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²⁸⁾ 그 설립 기반은 무령왕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백제 왕실에서 비중이 큰 제의가 동명묘의 배알의식과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祭天祀地였다. 백제 왕권의 권능을 상징하는 동명묘 배알의식은 전지왕 2년을 끝으로²⁹⁾ 더 이상 거행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는 시조와 천신이 혈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로지 천신만을 위한 제사라기보다 조상의례적인 성격을 겸한 것이었다. 이 의례도 동성왕대를 끝으로 지내지 않았다.³⁰⁾ 이러한 성격의 동명묘 배알과 제천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무령왕은 이에 대신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왕실 소가계집단 구성원들간의 단결과 신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제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직 국가 제례에 대한 예법과 격식이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구태묘 제의와 같은 종묘 설치가 필요하였다.³¹⁾ 이는 왕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

28) 양기석,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1, 91쪽.

29)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2년 춘정월.

30)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11년 동10월.

31) 구태묘 제의 실시 시기를 무령왕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정재윤, 앞의 논문).

려는 소가계 집단의 우월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무령왕릉의 묘제가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고 있던 전축분을 채용하고 있는 점은 무령왕계 소가계집단의 배타적인 골족의식과 깊은 관련을 가진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령왕계 소가계집단의 우월한 골족의식의 고양은 사비시대 초 성왕대의 정치개혁으로 이어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성왕대에 시행한 시호제 정비와 무령왕계의 왕위계승권 확립, 仇台廟 祭儀 실시, 불교사상에 의거한 왕권의 신성족 관념 형성 등이 바로 무령왕대에 태동된 역사적 산물이었다.³²⁾

Ⅲ.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1. 高句麗에 대한 인식

무령왕대에 백제가 고구려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대에서 성왕대에 이르는 시기에 나오는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에 관한 기사이다. 동성왕대에는 말갈의 漢山城 습격(482년 9월), 동성왕의 한산성 위무기사(483), 고구려의 雉壤城 공격(495), 한산의 수재민들의 고구려 유망(499) 기사가 있고,³³⁾ 무령왕대에는 백제의 고구려 水谷城 공격(502), 말갈의 馬首柵과 高木城 침입(503), 말갈의 고목성 침입(506), 백제의 고목성과 長嶺城 축조(507), 고구려와 말갈이 橫岳 침입(507), 고구려의 加弗城·圓山城·葦川 공격(512), 무령왕의 한성 순행(523)이 있다.³⁴⁾ 이어 성왕대에는 고구려의

문(1999), 147~149쪽).

32) 양기석, 앞의 논문(1991), 1991, 92~93쪽.

33)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4년 9월, 5년 춘, 17년 8월, 21년 하 참조.

34)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2년 11월, 3년 9월, 6년 7월, 7년 5월·10월,

穴城·五谷原 공격(529), 고구려의 牛山城 공격(540), 고구려의 獨山城 침입(548)과 같은 기사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³⁵⁾

이 시기 백제와 고구려간에 전쟁이 벌어진 지점을 일단 지명만으로 비정해 보면 동성왕대의 경우 한산성은 지금의 서울지역이고, 치양성은 근초고왕 24년(369)조에 고구려와의 전투지점인 황해도 白川에 각각 비정된다. 무령왕대의 전투지점을 살펴보면 지명 미상인 加弗城, 圓山城과 葦川을 제외하고 水谷城은 황해도 신계군 다울면으로, 馬首柵은 고구려의 馬忽郡으로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에,³⁶⁾ 高木城과 長嶺城은 연천 일대로,³⁷⁾ 漢城과 橫岳은 서울지역으로³⁸⁾ 각각 비정된다. 성왕대에 보이는 전투지점을 살펴보면 穴城은 고구려때는 穴口郡으로 현재 강화도에, 오곡원은 고구려때 五谷郡으로 현재 황해도 서흥군에,³⁹⁾ 우산성은 고구려때 牛岑縣으로 보아 현재 황해도 금천면 우봉면에,⁴⁰⁾ 독산성은 '漢北'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한강이북지역인 경기도 포천 성산산성에 각각 비정할 수 있다.⁴¹⁾

그런데 위의 지명 비정에 문제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있다. 동성왕대의 한산(성)은 서울지역이 아니라 한성의 주민들이 천도 직후에 사민해 온 충남 직산일대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⁴²⁾ 480년대에 고구려가 주로 중부 내륙지역인 薩水原(칭원 미원)-犬牙城(보은) 일대에서 제라동맹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점⁴³⁾을 들 수 있다. 성왕때의 獨山城은 孤山과 같은 지명으로서 현재의 충남 禮山郡 禮山면에 비정된

12년 9월, 23년 2월 참조.

35)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7년 10월, 18년 9월, 26년 정월 참조.

36)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10쪽.

37)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 下, 『한국학보』 3, 1976, 120쪽.

38) 김정호, 『大東地志』 漢城府 山水.

39)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406쪽.

40) 김병남, 「백제 성왕대의 북방 영역 변화」 『한국사연구』 120, 2003, 68쪽.

41) 김병남, 앞의 논문, 70쪽.

42) 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1978, 15쪽.

43)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001, 35쪽.

다.44) 『日本書紀』 권19 欽明紀 9년조에 고구려 군대가 백제군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馬津城과 같은 지역으로 생각된다.45) 이곳을 『삼국사기』에서는 ‘漢北’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한강 이북지역인 경기도 포천 성산산성으로 비정하였으나, 성왕 26년 이후 제라동맹군이 고구려군의 침입에 대하여 차령산맥 일대 충청도 일원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독산성은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 ‘漢北’으로 표기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남한지역으로 판단되는 한산이나 독산성 등을 제외하면 『삼국사기』는 거의 한강유역과 그 이북 지방인 임진강과 예성강 일대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전투를 벌인 것으로 기록한 것이 된다. 더구나 523년에는 무령왕이 한성에 순행을 한 것으로 보면46) 백제가 한성지역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과 무령왕대의 한강유역 영유설에 대하여 현재 부정론과 긍정론이 제기되어 있다. 부정론의 입장은 그 기사의 신빙성을 아예 부정하거나47) 또는 지

44) 『삼국사기』 권37 잡지 地理4의 都督府一十三縣條의 支壽州의 屬縣중에 “馬津縣本孤山”이라 한 기사와 金正浩, 『大東地志』 권5 禮山條에도 “本百濟孤山 一云烏山 唐改爲馬津”이라 한 기사 및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禮山縣條에 “禮山本百濟烏山 新羅改爲任城”이라 한 기사가 참고된다.

45) 흙명 9년은 백제 성왕 26년(548)에 해당되는데 연대가 동일하고 명칭도 같기 때문에 이 기사는 『일본서기』의 마진성 전투기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23년 춘 2월.

47) 小田省吾, 『朝鮮史大系』(上世史), 朝鮮史學會, 1928, 90쪽.

津田左右吉, 「長壽王征服地域考」,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1964, 69쪽.

이병도,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1959, 428·440쪽 ; 『국역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77, 57쪽.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2005, 175~189쪽.

최종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1998, 135~136쪽 ; 「몽촌토성 내 고구려유적 재고」 『한국사학보』 12, 2002, 9~40쪽 ; 「아차산 고구려보루의 역사적 성격」 『향토서울』 64, 2004, 87~128쪽 ;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고대사학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467~495쪽 ; 「남

명 이동설,⁴⁸⁾ 무령왕계 백제 왕실의 조작설⁴⁹⁾ 등으로 수정해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긍정론의 입장에서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설,⁵⁰⁾ 한강유역 일시 회복설⁵¹⁾ 등 여러 견해가 있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차산 일대에서 보루성유적이 발굴 조사됨에 따라 고구려가 한강유역 일대를 한동안 지배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⁵²⁾ 다만 그 유적의 편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발굴

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연구」 『선사와 고대』 24, 2006, 283~299쪽.

48) 今西龍,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1934, 126쪽.

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1978, 6~7쪽.

49)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한국사연구』 45, 1984, 23~25쪽.

50) 임법식, 「5~6세기 한강유역사 재고 : 식민사학의 병폐와 관련하여」 『한성사학』 15, 2002, 23~35쪽.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 2002, 131~156쪽 ;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2003, 217~243쪽 ; 「백제 성왕대의 북방 영역 변화」 『한국사연구』 120, 2003, 59~84쪽 ; 「백제 웅진천도 초기의 한강유역 상황」 『한국사상과 문화』 26, 2004, 109~132쪽 ; 「백제 성왕대 북방영역 관련 지명 분석」 『한국상고사학보』 52, 2006, 5~23쪽.

51)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상)」 『한국학보』 2, 1976, 115쪽.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 14, 1980, 22~23쪽 ; 「5~6세기 백제의 북계 -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23~51쪽.

성주탁·차용걸, 「백제의식고」 『백제연구』 12, 1981, 80쪽.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의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합집, 2000, 75~91쪽.

김현숙,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 2003.

52) 고구려 주류부대가 일단 철수는 하였지만 이후 한성에는 그 잔류부대가 도성 중의 하나인 남성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를 입증해 주는 자료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유적이다. 한성에 잔류한 고구려 군대는 군사방어기능을 갖춘 몽촌토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는 廣口長頸四耳壺를 비롯한 모두 15개 기종 343개체에 달하며, 1989년 夢村土城 6차 조사에서는 확인된 3.1×3.7m 가량의 범위에서 ㄱ자형의 온돌 고래와 굴뚝시설, 그리고 적십건축물지는 고구려 후기 건축 유적인 集安 東太子遺蹟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김원용 외, 『몽촌토성 -동북지

보고자는 몽촌토성이 거점성으로서의 기능이 다한 직후인 5세기 말이나 6세기 전반경으로 보고 있다.⁵³⁾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백제가 475년 이후 한강유역을 곧바로 수복하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차산 일대의 보루성유적이 단기간에 존속한 것으로 본 견해를 참조해 보면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기간은 비교적 짧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전술적으로 경기병을 동원해 한강유역에까지 이르러 단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무령왕대에는 적어도 한강유역에 재진출하여 백제가 이전에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의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⁵⁴⁾

여기서 무령왕대에 백제가 한강유역의 고구려군을 구축하고 그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조에서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한강유역 이북지역에 진출한 사실을 과장해서 서술하였던 그 배경과 의도가 궁금해진다. 이러한 과장된 서술이 대고구려 관계 기사에 나오게 된 것은 당시 무령왕 소가계집단이 갖고 있었던 자존적인 영역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무령왕 소가계집단들은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롤모델로 근초고왕을 설정하고 그가 이룩해 놓았던 영토국가로의 회귀를 도모하였음이 다음의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구발굴보고』, 서울대박물관, 1987 ; 『몽촌토성 -동남지구발굴조사보고』, 서울대박물관, 1988 ; 『몽촌토성 -서남지구발굴조사보고』, 서울대박물관, 1989 ; 몽촌토성발굴조사단, 『정비·복원을 위한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서』, 1984 ;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서』, 1985를 참조할 것.

53) 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연구」 『선사와 고대』 24, 2006, 35쪽.
 54) 무령왕대에 들어와서 백제가 한강유역 일부지역을 재탈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들 지역이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한성이 함락당한 이후 한강유역 일대는 475년의 전쟁으로 파괴되고 민호의 사민으로 거의 도성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되었다. 이곳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의 고구려군이 성이나 보루성에 주둔하여 치안 유지와 백제 침입에 대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전술적으로 경기병을 동원하여 고구려 및 말갈군과 단기전을 치르는 교쟁지역이었을 것이다.

D-聖明王이 “옛적에 우리 선조 速古王, 貴須王의 치세때에 安羅, 加羅, 卓淳의 婁岐 등이 처음 사신을 보내고 상통하여 친밀하게 친교를 맺었었다. 子弟의 나라가 되어 더불어 융성하기를 바랐다.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 하4월)

위 기사는 성왕이 근초고왕때 가야와 상하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회고하는 내용이지만 성왕을 비롯한 무령왕 소가계집단에서 이러한 근초고왕대의 영역관이나 대외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근초고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여 북쪽으로 예성강유역에서 남쪽으로 영산강 유역과 낙동강유역의 가야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역을 크게 확대시킨 백제의 걸출한 정복군주였다. 그들은 근초고왕대의 영광을 부각시켜 다시 한번 백제의 영광을 부활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성왕이 이룩하고자 하였던 중흥의 목표는 바로 근초고왕대였다. 이러한 근초고왕대의 영역관을 실천에 옮긴 군주는 무령왕이었다.

무령왕은 백제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강적 고구려를 극복하는 일이었다.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무령왕은 대외관계에서 고구려를 가장 중시하였다. 백제는 근초고왕때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패사시킬 정도로 고구려에 대해 대승을 거두었으나 광개토왕대 이후부터는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475년 고구려가 한성을 급습하여 개로왕을 패사시키고 왕도 한성을 상실한 뼈아픈 과거를 경험하였다. 백제와 고구려간에 대립 항쟁이 치열해질수록 두나라는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멸칭으로 ‘百殘’(<광개토왕릉비문>)을 사용한 바 있다. 반면 472년 백제 개로왕에 북위에 보낸 표문에는 백제가 고구려에 대해 ‘승냥이와 이리[豺狼],’ ‘추악한 무리들[醜類],’ ‘더벅머리 아이[小豎]’ 등과 같은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성왕은 “北敵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신라도 막을 수가 없다.”고 언급한 대목에서⁵⁵⁾ 고구려를 ‘북적’으로 표현하면서 힘의 열세를 느끼고

있었다.

무령왕은 즉위 초의 정변을 수습한 후 곧바로 고구려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무령왕 2년(502) 11월 달솔 優永이 거느린 5천의 백제군이 고구려의 水谷城을 공격을 한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를 선제공격한 것은 개로왕 이후⁵⁶⁾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백제가 남천 이후 고구려에 대해 수세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무령왕은 백제의 대외관계에서 고구려와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백제의 이러한 자세 변화는 무령왕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통해 한성고도에 대한 실지회복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백제에게서 한성지역은 475년 고구려에게 빼앗기기 이전에 한동안 백제의 고도였고, 또한 부여의 족조인 동명을 모신 東明廟가 있어 백제 왕권의 권능을 부여받은 신성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곳이었다. 이곳은 근초고왕대에 이룩해 놓은 영토국가로 회귀할 때 천하의 중심지로 인식되던 곳이기도 하다. 369년 치양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대파시켜 대승을 거둔 기념으로 대대적인 열병을 실시하여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깃발을 드날리던 영광의 장소였다.⁵⁷⁾ 한성고도를 수복하는 일은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에게 부여된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다시 한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찬란했던 근초고왕대의 영광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웅진천도 이후 백제는 왕권의 쇠약에 따른 일련의 정정 불안과 계속되는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으로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령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전개한 것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전성기 근초고왕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무령왕이 475년 고구려에 의해 빼앗

55)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5년 11월.

56)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15년 추8월.

57)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4년 11월.

긴 한성고토를 회복함으로써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51년 성왕대에 이룩한 한성고토회복은 무령왕에 구축한 대고구려 우위정책을 토대로 이룩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무령왕대 백제의 대고구려전에는 종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고구려에 선제공격을 가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대응 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이전 동성왕대에는 제라동맹군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해 왔다. 반면 무령왕대에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신라나 가야 및 왜군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고 백제 단독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양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고구려를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정불안으로 인해 지배층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던 백제로서는 고구려에 단독으로 대응하는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단독으로 고구려전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령왕대의 지존적인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강적 고구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종전과는 달리 신라나 가야 및 왜의 지원이 없어도 단독으로 고구려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백제 중심의 천하관을 표출한 것이다.

여하튼 무령왕은 고구려와의 몇차례 전투를 통해 한성고토를 완전히 수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고구려의 기선을 제압하고 남진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령왕대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였다. 백제가 梁에 보낸 국서에서 “누차 고구려를 공파하였고…다시 강국에 되었다[更爲疆國]”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백제의 강국 선언은 고구려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이러한 고구려와 전투에서의 승리는 무령왕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을 공고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2. '旁小國'에 대한 인식

무령왕때 백제가 고구려에 대해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였듯이 신라나 가야와 같은 다른 남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梁職貢圖』百濟國使條에 나오는 '旁小國'의 존재이다. 이 자료는 521년에서 54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521년 백제가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백제 사신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다.⁵⁸⁾ 그리고 이 자료는 『양서』백제전의 저본자료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⁵⁹⁾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백제의 '방소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 旁小國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양직공도』백제국사조에는 6세기 초 무령왕대 백제의 부용된 남방세력 9개국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 열거된 나라들 중에는 『일본서기』권9, 신공기 49년 춘3월조에도 나오고 있어 그 사실성이 높은 편이다. 369년 백제가 평정했다는 가라 7국 중에 啄國·多羅·前羅와 백제가 南蠻으로 편칭하며 도륙하였다는 枕彌多禮는 『양직공도』의 '방소국'으로 나오는 下枕羅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소국'의 위치를 비정하는 견해는 구구하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비정할 수 있다.⁶⁰⁾ 叛波는 『일본서기』에 나오

58) 이용현, 앞의 논문, 178~179쪽.

59) 윤용구, 「현존 『양직공도』 백제국기 三例」 『백제의 국제성과 무령왕』,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국제학술회의요록, 2011, 195~203쪽.

60) 『양직공도』백제국사조의 '부용국'에 대한 지명 비정은 다음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이홍직, 「양 직공도 논고」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409쪽.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84, 106쪽.

이근우, 앞의 논문(1997), 52~63쪽.

는 加羅에 해당하며⁶¹⁾ 고령의 대가야로 비정된다. 후은 대구·경산이나 창원에, 多羅는 함천에, 前羅는 安羅와 통한다고 보고 함안에, 斯羅는 신라에, 止迷는 『신찬성씨록』 神別左京下·止美連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산강유역에 비정⁶²⁾할 수 있다. 다음 麻連은 지미와 함께 영산강유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지만⁶³⁾ 미정이다. 上己文은 『일본서기』 계체기 7년조에 나오는 己文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섬진강상류인 임실·남원에 비정되며, 下枕羅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 기사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나 강진에 비정된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노령산맥 이남의 남원·임실 등 섬진강 상류와 남해안지역, 영산강유역, 그리고 경북일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지역 전역에 걸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방소국' 중에서 신라에 해당하는 斯羅는 백제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백제에 부용된 국가는 아니었다. <광개토왕릉비문> 영락 6년 기사에 백제와 신라가 옛적부터 고구려의 屬民이었다는 고구려의 일방적 주장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文咨明王때 涉羅가 고구려에 흰 珮를 공물로 바치다가 백제에 병합된 이후 공납을 받을 수 없었다는 기사가 있다.⁶⁴⁾ 여기에 나오는 涉羅는 특산물 珮가 제주도에서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 제주도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지만,⁶⁵⁾ 당시 고구려에 지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렵다. 이는 고구려세력권에서 이탈하여 백제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신라를 비하하여 인식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521년 백제가 신라와 함께 양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실제와는 달리 중국과의 외교경험이 부

이용현, 앞의 논문(1999), 179~182쪽.

연민수, 「6세기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동향」 『신라문화』 7, 1990, 119쪽.

61)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

62) 이용현, 앞의 논문, 180쪽.

63) 이용현, 앞의 논문, 180쪽.

6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13년.

65)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372쪽.

족한 신라를 낮게 평가하고 백제의 부용국으로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시 백제와 길항관계에 있거나 또는 경쟁상대로 인식된 斯羅·叛波·止迷 등은 新羅·伴跛·止美와 같은 아화된 국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비칭을 사용한 것도 백제측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는 남방지역에 있는 이들 ‘방소국’들에 대해 화이관이 반영된 ‘南蠻’으로 폄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일본서기』 권9, 신공기 49년 춘3월조의 ‘屠南蠻沈彌多禮’라는 기사이다. 沈彌多禮를 제주도나 강진으로 보면 ‘남만’으로 폄칭한 세력은 왜가 아니라 백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6세기 초 무령왕대에도 인식상의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세기 후반 이래 백제 중심의 천하관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백제와 가야제국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일본서기』 기사가 참고가 된다.

- F-① [성]왕은 임나에, “옛적에 우리 선조 속고왕, 귀수왕이 당시 한기 등과 화친을 맺고서 형제가 되었다. 이에 나는 그대를 자제로 알고, 그대는 나를 부형으로 알았다. (권19, 흠명기 2년 추7월)
- ② 성명왕이 “임나의 나라는 우리 백제와 예부터 이제까지 자제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권19, 흠명기 5년 11월)

위 기사는 사료 D와 함께 성왕의 회고담에서 나온 기사인데 4세기 후반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당시 백제와 가야제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때 백제와 가야제국은 ‘兄弟’나 ‘子弟’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가야제국은 4세기 후반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에 백제에 부용된 세력으로서 상하관계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 이처럼 신라와 가야 제국을 포함한 남방지역의 나라들을 ‘방소국’으로 규정하고 그의 부용국으로 주장하게 된 데에는 무령왕대에

이루어 놓은 대내외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백제국가의 우월성을 과시한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남방지역의 주변국들에 대한 백제의 이러한 우월의식은 바로 백제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은 대내적으로 대왕호 사용과 왕권의 골족의식을 고양시킨 배타적인 신성족 관념, ‘更爲疆國’의 선언에서 나타난 고구려와의 대등한 인식,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지역 여러 세력에 대한 복속 개념인 ‘旁小國’의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무령왕대 당시에 표출된 천하관의 내용과 특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자존적인 천하관은 대내적으로 대왕의식과 골족의식의 고양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세계에 대한 차등의식을 통해 성립되었음을 밝혔다. 무령왕은 최고의 군주호인 대왕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백제 대왕이든 양의 영동대장군이든 간에 중국 왕조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군주호·장군호나 자존적 용어를 대내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대왕호와 자존적인 용어 사용은 대내외적으로 백제국가의 신성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정치적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무령왕은 자신의 취약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왕위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합법성을 명분상으로나마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자신과 생모의 신분을 개로왕의 혈통에 직접 연결시키는 계보 조작을 하였다. 그리고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령왕 소가계 중심의 골족을 중시하였다. 골족은 君號를 갖고 외교사절이나 지방의 통치 거점인 담로에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 배타적인 골족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왕권의 신성성을 표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령왕대의 천하관은 영토관념에서도 표출되었다. 무령왕 소가계집단이 설정하였던 천하 세계의 범위는 정복군주 근초고왕이 이룩한 영역국가로의 회귀였다. 그들은 근초고왕대의 영광을 부각시켜 백제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대고구려 관계에서는 실제와는 상관이 없이 백제의 한강유역영유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무령왕은 이러한 근초고왕대의 영역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즉위초의 정변을 수습한 후 곧바로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백제가 남천 이후 고구려에 대해 수세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백제의 이러한 자세 변화는 무령왕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통해 한성고토에 대한 실지회복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백제는 강적 고구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종전과는 달리 신라나 가야 및 왜의 지원이 없어도 단독으로 고구려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백제 중심의 천하관을 표출한 것이다. 여하튼 무령왕은 고구려와의 몇차례 전투를 통해 한성고토를 완전히 수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고구려의 기선을 제압하고 남진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강국의 선언은 고구려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었다.

백제는 신라와 가야 제국을 포함한 남방지역의 나라들을 '방소국'으로 규정하고 그의 부용국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대등한 관계로 인식한 대고구려 인식과는 달리 백제국가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바탕위에서 상하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남방지역의 주변국들에 대한 백제의 이러한 우월의식은 바로 백제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문접수:2011.11.25, 심사시작:2012.1.20, 심사완료:2012.1.25]

주제어 : 무령왕, 천하관, 대왕의식, 골족의식, 강국 선언, 부용
세력

<참 고 문 헌 >

-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의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합집, 2000.
- 김현숙,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 2003.
-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학술대회』, 2006.
- 공주대학교 외, 『백제의 국제성과 무령왕』,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2011.
- 권오영, 『무령왕릉』, 돌베개, 2005.
- 노중국, 「백제 무령왕대의 집권력 강화와 경제기반의 확대」 『백제문화』 21, 1991 및 「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 요지, 2011.
-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2005.
-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동화출판사, 1983.
- 시노하라 히로카타, 「고구려적 국제질서인식의 성립과 전개 -45세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 성주탁 · 차용걸, 「백제의식고」 『백제연구』 12, 1981.
- 오계화, 「백제 무령왕의 출자와 왕위계승」 『한국고대사연구』 32, 2004.
- 연민수, 「6세기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동향」 『신라문화』 7, 1990.
- 윤용구, 「현존 『양직공도』 백제국기 三例」 『백제의 국제성과 무령왕』,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2011.
-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 14, 1980 ; 「백제 웅진시대와 무령왕」 『백제무령왕릉』, 1991 ;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1 ; 「5~6세기 백제의 북계 -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 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 이근우,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삼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박사학위논문, 1994 및 「웅진시대 백제의 남진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한국사연구』 45, 1984.
- 李鎔賢, 「梁職貢圖」 百濟國使條의 「旁小國」 『朝鮮史研究 會論文集』 37, 綠蔭書房, 1999.
- 이주현, 「위진남조의 장군제와 ‘영동대장군」 『백제의 국제성과 무령왕』,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2011.

- 정재윤, 「동성왕 23년 정변과 무령왕의 집권」 『한국사연구』 99·100합
집, 1997 ;
「웅진시대 백제 정치사의 전개와 그 특성」, 서강대대학원박사
논문, 1999 ;
「무령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국력회복」 『웅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 충청남도 ·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편,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및 『백제무령왕릉』,
1991.
- 최종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
구』 28, 1998 ;
「몽촌토성 내 고구려유적 재고」 『한국사학보』 12, 2002 ;
「아차산 고구려보루의 역사적 성격」 『향토서울』 64, 2004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연구」 『선사와 고대』 24, 2006.
- 坂元義種,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古代東^アジ^アの日
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 松下洋巳, 「五胡十六國の天王號について」 『調査研究報告』 44,
學習院大, 1999.